



대학주보

서울·경기 RISE 사업 선정...최대 5년 63억씩 투입 판교 VI 창업캠퍼스 개설부터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까지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학교가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사업(RISE)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RISE 사업은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대학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서울은 RISE 사업 3차 년도 중간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면 2년이, 경기도는 2차 년도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면 3년이 각각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양 캠퍼스 모두 최대 5년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서울캠은 매년 약 15억 원의 예산을, 국제캠은 컨소시엄을 통해 매년 40억 원과 용인시 지역 매칭 금액 8억 원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국제캠캠퍼스]

국제캠과 명지대가 공동으로 참여한 ‘KnM+컨소시엄’이 RISE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KnM+컨소시엄’에서는 ‘KnM+EDU’, ‘GAIA-LINK’, ‘RISE-O:NE 플랫폼’, ‘판교VI캠퍼스’ 등 5대 역점 프로그램을

‘스’, ‘AI 아카데미’ 등 5대 역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핵심은 경기도 미래 전략 산업인 G7(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양자, DX, 탄소중립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다.

홍충선 부총장(국제 RISE 사업단장)은 “명지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하고 있기에 반도체 공정 분야가 강하고, 우리학교는 설계 분야에 강하다”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어 컨소시엄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교육과정, 계약학과, 융합학과,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포함하는 교육 플랫폼 ‘KnM+EDU’를 구축했으며 우리학교 교육모델인 ‘KHU-EXCEL’, ‘AMAZING AI School’, ‘사회혁신 학기제’ 등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KnM+EDU 프로그램은 기술혁신과 기술지원 부문으로 나뉘게 된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지산학(지역·산업·대학)협력 기술개발과제’를 G7 성장형, GX 자립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2면에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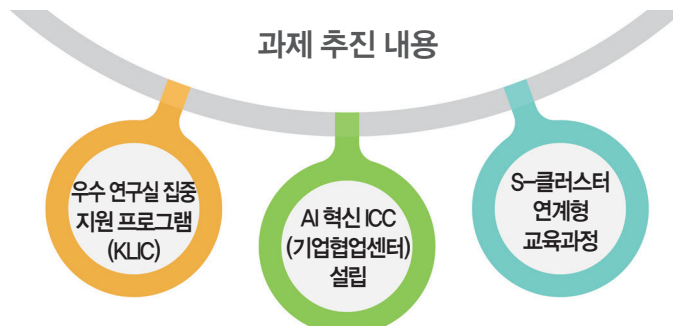
〈국제캠 RISE〉 명지대와 ‘컨소시엄 KnM+’ 구성

사업유형 : 미래성장산업 선도형



〈서울캠 RISE〉 단독 시행

사업유형 :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국가장학 II 유형 대응 특별우정장학 35억...지원자격은 동일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이재형 기자 leecheahyeong0107@khu.ac.kr

국가장학 II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우정장학(국가대응) 35억 원이 책정된다.

등록금 인상으로 우리학교가 국가장학 II유형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올해 등록금을 5.1% 인상해 발생한 약 110억 원의 추가 수입 중 35억 원을 장학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장학팀은 “국가장학 II유형의 3년간 총지급액은 약 105억 원으로,

한 해 평균 35억 원이 지급됐다”며 금액 산정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3년의 평균 금액을 보는 이유는 해마다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I 유형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우정장학을 지급했다. 약 6500명의 학생에게 약 16억 원이 지급됐다. 35억 원 중 남은 금액 약 19억 원은 오는 2학기 특별우정장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우정장학 지원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백분위) 획득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기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자격과 동일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II유형과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우정장학은 국가장학금 I유형을 지원받은 학생 대상으로 지급돼, 국가장학금 I유형을 받은 학생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당 장학은 등록금성 장학이기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지급이 불가능하다.

특별우정장학 지급은 기본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이다. 단, 한국장학재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됐다.

그 외 기관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개인이 즉시 상환해야 한다. 미상환 시 학자금 중복 지원으로 여겨져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타 대학도 등록금 인상 이후 국가장학금 II유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내 자체 장학을 마련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등록금 인상분 69억 원 중 13억 원을 장학금으로 재투입

한다. 다만, 이는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전액 보전한 것은 아니다. 성균관대 학생 A 씨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높아진 학생 부담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국가장학금 II유형 대상자인 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못 받게 돼 걱정이었는데 학교에서 지원해 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비슷한 장학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 종합

경영학과 조직행동론, 부정행위 의혹에 오프라인 복귀 녹화 판독 · IP 대조 조사...의심 학생 별도 재평가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서울】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영학과 전공필수 과목 <조직행동론>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돼 결국 대면 강의로의 전환이 결정됐다.

조직행동론 시험은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Zoom(줌)'에 접속해 시험을 치른다. 지난달 20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중앙 도서관에서 부정행위 공모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과 동아리 중심으로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 글이 추가로 올라왔다.

에브리타임 게시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정행위 방식은 동아리 단위로 동아리방에 모여 단체로 시험을 보는 행위였다. 또한, 줌의 아바타 기능을 활용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시험에 응시했다고 한다. 우리신문에서 경영학과 소속 10

개 동아리에 입장을 요청한 결과, 3개의 동아리가 “사실 확인 결과, 단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나머지 동아리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수강자들은 담당 교수에게 사실 검증과 시험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직행동론을 담당하는 구자숙(경영학) 교수는 “시험 하루 전 임의로 시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존 시험 방식을 유지한 채, 부정행위 방지 절차를 추가로 도입해 지난 21일 기말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이후 구 교수는 부정행위자 조사에 나섰다. 우리신문과 만난 구 교수는 “녹화된 줌 화면을 판독하고, 시험 응시 장소와 IP 주소를 대조하는 등 정황이 의심되는 학생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대부분 학생이 부정행위를 부인한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해 성적을 별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영학과 과목 <조직행동론>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강의는 대면 강의로 전환한다. (사진=대학주보 DB)

조사가 계속되며 해당 과목의 성적 처리 역시 지연됐다. 성적 열람 기간 마지막 날까지 성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성적 공시는 정정 기간 중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수강생은 성적 확인에 차질을 겪었다.

결국, 구 교수는 조직행동론 과목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고, 다음 학기에 열리는 강의를 대면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구 교수는 “학

생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서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 강의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현재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는 트러스트라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교무처는 “기술적인 방안을 추가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교원-학생 상호 신뢰를 위한 윤리서약 및 시험 방법의 다양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면에서 계속 →

G7 성장형 과제는 경기도 내 핵심 산업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GX 자립형 과제는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기술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G7 성장형 과제에는 AI·빅데이터, 반도체, 양자, 디지털전환,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포함된다. GX 자립형 과제에는 소부장, 제조업, 콘텐츠, 농식품, 스마트팜, 디자인, 보건복지, 문화·예술이 포함된다. 홍 단장은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이 GX”라며 “첨단산업 분야와 GX 분야를 나눠 해당 특성에 맞게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KnM+EDU 기술지원 부문에서는 G7·GX 맞춤형 투 트랙 체계를 마련했다. 수요 기반 공용 장비와 시제품 제작, 기술 자문, 실증 플랫폼을 통해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과 지식재산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각 분야 기업의 기술적 요구를 대학 연구진과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지식학 협력 얼라이언스 소통을 맡게 될 GAIA 센터는 산업체 협력 문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대형연구단과 GRRC(지역협력연구센터), 기술지

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소통은 'GAIA-LINK' 플랫폼으로 실현되며 이는 산업체, 연구기관, 지자체, 대학이 협업하는 형태의 얼라이언스로, AI·반도체·양자 기술 등 분야별 기업과 학과, 연구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GAIA-LINK 내실화를 위해 GAIA 센터는 '경희 얼라이언스 회원사 제도'를 운영하며 참여 기업에 장비 지원, 협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한다.

홍 단장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이 얼라이언스 하에 서로 협력해 기업들은 회원사 제도로써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애로기술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해결을 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창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판교VI(Venture Incubating) 캠퍼스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기업 육성 핵심 거점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과 연계된 'Gx7 Up 창업육성 프로그램'은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장학금, 창업 마이크 로디그리, 디지털 배지 발급 등 전 주기 창업 지원을 제공한다.

홍 단장은 “판교 VI 캠퍼스는 오

는 9월에 개설하는데,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솔브레인' 측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학생, 또는 교원이 창업을 원하면, 사용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캠퍼스】

서울캠도 RISE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돼 서울 동북권을 혁신과 균형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 실천 전략을 가동한다. 특히 AI, 바이오, 창조산업 등 서울시 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글로벌 인재 육성,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 등 총체적인 지역혁신 모델을 추진한다.

서울캠 RISE 사업단은 '대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혁신도시-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단위 과제로 서울 전략 산업과 대학의 강점을 긴밀히 연계한다. 서울캠은 의·치·한·약 계열을 모두 보유해,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 기관으로서 제약·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천연물 소재 등 바이오 기반 기술 개발에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연구실(K-Lab)에 'K-Lab Intense Care(KLIC)'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술이전, 창업, 국

제표준화 등 맞춤형 트랙으로 지원한다.

서울 RISE 추진단 박재홍 부단장(교수, 경영학)은 KLIC 프로그램에 “연구실 내에서 AI나 바이오 등 서울시가 주력하는 전략 사업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수 연구실 집중 지원 프로그램(KLIC) ▲AI 혁신 ICC(기업협업센터) 설립 ▲S-클러스터 연계형 교육과정 등을 추진한다.

서울 RISE 사업단은 글로벌 기술이전 마케팅 프로그램(KHU Global Tech Marketing), 창업 육성 프로그램(B.I.G) 등을 통합 운영하며 기술 실용화와 창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박 부단장은 “국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글로벌 마케팅 역량은 필수”라며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마케팅 업체와 연결해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또한 'AI 혁신 ICC(서울형 기업협업센터)'를 신규 설립해 'KHU ABC ICC'를 활성화한다. 이는 우리학교 3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미래과학, 바이오헬스, 문화예술에 기반한 기존 특화 ICC 5개에, 신규 AI 혁신 ICC를 더해 KHU ABC-ICC 브랜드화 및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한 수익

창출을 꾀한다.

박 부단장은 “예를 들어, 패션의 상 ICC 센터는 의상학과 교수님, 동대문구 봉제산업 협회와 협업해 봉제 산업체에게 자문하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며 “3D 프린트 등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컨설팅해 줌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시 전략산업 클러스터에 맞춘 지식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S-클러스터 연계형 교육과정(Track 제도)'를 통해 전공별 산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비교과 연계를 추진 중이다. 또한, 학내 우수 캠퍼스 톤디자인 문화를 '챔피언스LIG'로 브랜드화해 지역 연계형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있다.

현장실습도 강화된다. 2024년 기준 전국 3위 수준의 실습 운영 실적을 보유한 우리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GO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회진출 지원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박 부단장은 “중간 평가를 앞두고 산학협력, 기술개발과 학생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사업 후에도 기술 단계가 최고치로 올라가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희의 역사, 대학의 미래’ 경희 역사전시실 새 단장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hu.ac.kr

【서울】 경희기록관이 개교 76주년을 맞아 중앙도서관 4층에 ‘경희 역사전시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전시실은 ‘경희의 역사,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경희가 걸어온 76년이라는 시간과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희학원 창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시대순으로 풀어내며, 교육·연구·실천이라는 경희 고유의 가치를 다양한 기록과 유물 속에 담아냈다.

해당 공간은 기존 설립자 메시지 전시실을 개편한 것으로, 경희 기록관 이금화 행정차장은 “경희 공동체의 삶과 실천을 포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전시실을 새롭게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시는 총 네 시기로 나뉘어 있다. 1부는 피난지 부산에서 시작된 경희학원의 창학 시절을 담은 ‘위대한 꿈, 담대한 도전’, 2부는 설립자의 철학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이어지는 3, 4부는 경희의 국제적 실천과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눈길을 끈 몇 가지 전시 기록물로는 세계평화의 날 관련 자료, UNAI·WCF 문서, 〈문화세계의 창조〉 원본, 대학주보 창간호, 학생생활 아카이브 등이 있었다.



① 1986년 세계평화의 해 기념 우표와 1993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이 전시돼 있다. ② 〈문화세계의 창조〉 원본에는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해 문화와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초창기 경희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③ 과거의 학생증 사진으로, 1960년대와 1970-80년대, 그리고 2010년대 학생증을 확인할 수 있다.

사색의광장 나무 뿌리 보행자 주의 필요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 사색의광장 보행로에 가로수 뿌리가 드러나 있다. 해당 장소는 사색의광장 주변 인도로, 중앙도서관 또는 학생회관 앞을 지나다닐 때 주로 이용된다. 캠퍼스에 벚꽃이 피거나 눈이 가득 내린 시기에는 포토존으로도 활용되는 공간이

다.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영민 교수는 “가로수 뿌리의 부분 답압으로 인해 뿌리가 지면으로 들린 상황”이라며 “나무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면 밖으로 나와 살길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답압이란 사람이나 중장비 등의 압력에 의해 토양이 다져진 현상을 말한다.



사색의광장 주변 보행로에 가로수 뿌리가 드러나 있다.



답압으로 인해 가로수 뿌리가 보행로를 가로질러 지면으로 드러났다.

Ch

대학주보

+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4 기획

“지속가능성 선도한 경희, THE 영향력 ‘세계 19위’” ‘기아 해소’ 분야 6위…스마트팜 연구가 견인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5 THE 대학영향력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세계 19위로, 세계 사립대 중 1위를 했다. 특히 17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산업·혁신과 인프라,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기아 해소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

세계 공동 19위 사립대 중 세계 1등

이번 THE 대학영향력평가에는 전 세계 2,318개교가 참여했다.

지표 특성상 공공성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국·공립 대학이 강세를 보이는 평가지만, 우리학교가 세계 20위 이내 유일한 사립대학으로 이름을 올린 이유에 대해 학술진흥팀은 “고등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조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각 SDGs 목표별로 100점 만점으로 변환 점수를 매긴 후, 17번째 지표인 SDG 17 점수, ‘SDGs를 위한 파트너십’과 SDGs 목표 점수 상위 3개를 합산해 종합 점수를 산출한다. 각 SDGs 목표별 변환 점수는 연구 실적 27%, 대학이 제출하는 정량 및 정성 실적의 합을 73% 반영해 산출한다. 이후 해당 연도 점수와 전년도의 평균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우리학교는 종합 점수 96점을 얻었으며, 전년도 종합 점수인 95점과의 평균값인 95.5점이 최종 점수로 산출됐다.

‘기아 해소’ 가장 높은 순위 그 배경은 스마트팜과 학과

우리학교는 세부 SDGs 지표 중

‘기아 해소’에서 세계 6위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다. 배경에는 ‘2024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 스마트팜과학과 정대현(바이오시스템공학), 권준탁(식물생산과학)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것이 주효했다.

정 교수는 AI를 기반으로 한 딸기 재배 최적화 기술을 개발했고, 최적화된 생육 예측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성과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향상 측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정 교수는 “스마트팜 기술로 농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과학과는 SDGs 활동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역사회 농업인 및 식품업자 대상 식량안보·지속가능 농업 관련 지식·기술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마트농업 및 AI 관련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청년농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론 수업, 현장 실습 활동을 진행했다.

국제기관과 협력해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

SDGs 11번 목표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에서도 13위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학술진흥팀은 “경희는 평화운동과 세계시민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유엔, 유네스코, 시민사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피스타 페스티벌에 UN NGO 협의체 'CoNGO',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약으로 한국 대학생 대표단 파견, 용인 교육지원청과 함께 '용인 미르아이 공유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물리학과 손석균(물리학)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재단이 지원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는 등 다양한 정부 및 국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후마 교육 모델 사회적 책임 이행기도

후마 또한 'THE 대학영향력평가'에서 강조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후마 정복철(법학) 학장은 “후마는 학생에게 문명 전 환경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 교양과목인 '세계와시민'이 대표적이다. SDGs 17가지 목표를 기반으로, 한 학기 동안 학생이 글로벌 시티즌 프로젝트(GCP) 활동을 수행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명원(국어국문학) 세계와시민 PD 교수는 “세계와시민은 세계대학에서도 유례가 없는 고등교육에서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대비 교원 자격 취득률 정량 평가로 불리한 점 존재

다만 발전이 필요한 지표 역시 존

재했다.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제공과 평생 학습 기회 제공'에서 우리학교는 세계 201위+로, 타 지표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원인은 정량 지표인 '전체 학생 대비 교원 자격 취득자 비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학술진흥팀은 “정성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나, 정량평가에서 반영하는 '전체 학생 대비 교원 자격 취득자 비율'은 사범 계열 단과대, 학과가 있는 대학에 유리하며 재직 학생 규모 대비 교육 계열 학과 수가 적은 우리학교로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향상된 평가를 얻는 방안으로 학술진흥팀은 “정량 실적 부문은 학교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교육 사범대학을 신설하지 않는 이상 점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목표 관련 연구와 논문 수 증가에 따라 연구 실적에서 점수를 추가로 얻는 것이 하나의 대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속도 내는 ‘데이터 행정’, IR&A센터 신설 성과 관리 ·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최단 기자 dan2530@khu.ac.kr

기획조정처 산하에 IR&A센터(Institutional Research & Analysis Center)가 신설됐다. IR&A센터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성과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향후 대학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IR&A센터는 대학 내외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과학적 운영 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중심 과제로 데이터 기반 대학 운영 조성, 성과 관리 기획, 정책 개발, 대학 전반의 데이터 수집 등을 정했

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정보 공시 및 고등교육 통계 대응, 교육 편제 표준분류시스템 관리, 자체 평가 운영 등을 수행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은 “IR&A센터는 교육, 연구, 학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설계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와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IR 생

태계 확산을 위한 대학 간 협력과 성과 관리 관련 의사결정 지원 업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R 조직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 대학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교육부의 대학 평가 지표 고도화, 정부 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대학 차원 데이터 기반 행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통계, 교육 수요자 만족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영역에서 정량적 분석이 필수가 되면서, IR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타대학 역시 IR센터를 통해 대학 내부 데이터를 통합·분석하고, 전략 수립과 외부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세대는 기획실 산하에 IR센터와 전략평가팀을 분리 운영해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이원화한다. 한양대는 기획처 산하 ‘한양 IDA센터’를 통해 대학 간 협력과 개방형 IR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숙명여대는 교육혁신원 산하 IR센터를 통해 학생 만족도와 수업 평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교육 품질 개선에 적극 활용 중이다.

학술진흥팀은 “IR&A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우리학교 경영 기조 중 하나인 ‘데이터 기반의 대학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학술 프로그램 관련 연구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는 파트너” 문제 정의 능력 강조...생성형 AI 실습 강연 열려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생성형 AI 강연 ‘오늘부터 매일 쓰는 생성형 AI 교육’이 지난 3일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생성형 AI에 관한 이론부터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실습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IT 기업 ‘모비니티(Mobinity)’ AI 프로젝트 엔지니어 주향목 씨는 시작에 앞서 “많은 분이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여기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런 인식 전환에 강연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기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미래 일자리 빼앗나? “인간 고유 영역 여전히 존재”

AI가 아무리 인간 수준 능력에 근접했어도, 인간 고유의 영역은 존재한다. 특히 주 씨는 AI 시대 인간이 갖춰야 할 능력 중 ‘문제 정의 능력’을 설명했다. 이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AI가 풀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AI가 문제를 푸는 데는 능숙해도,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속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다.

전공 지식과 AI 활용을 융합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주 씨는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지식과 기술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신이 가진 전공 지식에 AI를 접목할 줄 아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시로 기계 설비의 고장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이해하고 활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기업은 이제 ‘AI를 다룰 줄 아는’ 기계공학 전문가를 원한다는 거다.

업무 환경 속 효과적 수행을 위한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일컫는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주 씨는 이를 통해 기술과 사람을 연결해 협업을 이끄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선 국가적으로 공학도생에게 리더십과 매니징을 교육하듯이, 단순히 기술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선 이론뿐만 아니라 AI 실습도 진행됐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에서 참가자들은 AI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창의적인 지시를 내리는 이른바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웠다. 주 씨는 “AI에게 건네는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논리와 언어의 영역”이라며 “질문을



지난 3일 학생회관에서 생성형 AI 강연 ‘오늘부터 매일 쓰는 생성형 AI 교육’이 열렸다.

(사진=권도연 기자)

복기 및 개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엑셀 업무 자동화 실습에선 참가자들은 회사원 입장에서 각종 업무 과정을 자동화하는 법을 배웠다.

AI 활용,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실습 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참가자가 생성형 AI가 제공한 정보 중 오류를 어떻게 식별할지 묻자 주 씨

는 “결국 사람의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며 “AI에게 레퍼런스를 함께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근거를 직접한 번 더 확인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들어 생성형 AI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생이 많아진 현상에 대해서 주 씨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항상 AI가 결과물과 함께 제공한 과정과 설명을 자세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질문해

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AI를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존재가 아닌 나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는 씹킹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학습과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박채은(관광·엔터테인먼트학 2025) 씨는 소감으로 “마침 AI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다”며 “강연에서 기대했던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만족을 드러냈다.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예선 탈락 8월 단양대회 우승 재도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지난 1일, 배구부가 한국대학배구연맹 주최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를 1승 3패로 마쳤다. 인하대, 홍익대, 조선대, 중부대와 함께 A조에 배정된 우리학교는 조 2위 안에 들지 못해 예선 탈락했다.

배구부는 첫 경기부터 고전했다. 조선대와의 첫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패배했고 홍익대와의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했다. 이후 인하대에 경기를 넘겨주며 예선 탈락이 확정됐다.

염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대회를 아쉽게 마무리했지만 얻어온 것도 있다"며 "팀원에게 힘들더라도 더 힘내서 훈련에 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 열리는 단양대회에서 우승하면 좋겠지만, 4강 진출이 1차 목표"라며 "차근차근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부터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가 열린다. U-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배구부가 올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고성대회와 마찬가지로 조별예선을 치른 뒤, 각 조의 상위 2개 대

학이 4강에 진출한다. 배구부는 성균관대, 명지대, 조선대, 경상국립대, 중부대와 함께 B조에서 예선을 치른다.

부상에서 돌아온 정송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목표는 우승이다. "U-리그 인하대전 부상 이후 운동을 좀 쉬었는데, 이제 몸이 많이 올라왔다"며 "고성대회를 치르며 조금 더 집중하면 모든 팀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단양대회로 2025 시즌이 끝나는데, 프로 드래프트에 나가는 형들과의 마지막 대회인 만큼 우승으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금5개 포함 메달 10개씩씩이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양궁부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리커브 대학부 남자 단체전 2연패, 혼성 단체전 3연패를 비롯해 개인전에서도 많은 메달을 휩쓸며 대회를 빛냈다.

지난 29일 열린 남자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김예찬(스포츠지도학 2023), 김동현(스포츠지도학 2024), 이효범(스포츠지도학 2024), 최두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계명대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5-4 점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는 쏠오프 끝에 26-24로 승리를 거두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같은 날 열린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는 이효범 선수와 염혜정(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가 국립경북대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5-1(38-35, 38-38, 38-37)의 완승을 거두며 혼성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염혜정 선수는 지난 대회에서 김예찬 선수와 호흡을 맞춰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여자 대학부 단체전에서도 김세연(스포츠지도학 2022), 염혜정, 장미(스포츠지도학 2023), 김미강(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가 한 팀으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하며 팀워크를 빛냈다.

개인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이어졌다. 여자 대학부 50m에서는 김세연 선수가 대회 타이 기록인 347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염혜정 선수는 60m 금메달, 70m 동메달을 각각 차지하며 대회 2관왕

에 올랐다.

남자 대학부 30m 종목에서는 김동현 선수가 358점으로 금메달을, 이효범 선수가 357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50m 경기에서는 최두희 선수가 은메달, 이효범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해 종합적인 기량을 입증했다.

50m 금메달을 획득한 김세연 선수는 "사실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시합 전 화살이 제대로 맞지 않아 마음이 복잡했지만, 경기가 잘 풀려서 기뻐다"며 소감을 전했다.

염혜정 선수는 "단체전 3위 이후 혼성 결승에서 마지막 화살로 1등이 확정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라 더 열심히 연습할 것이고 앞으로 대표팀 1군에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동현 선수는 "30m 경기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기고 순위권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잠시 어떻게 쏘아할지 고민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며 "열심히 훈련해 대표팀에 승선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궁부 최희라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무더운 날씨와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도 최고의 집중력과 기량을 발휘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연패라는 부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력을 발휘해 준 선수들에게 지도자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와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목표로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기량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우리학교 양궁부가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차지했다. 왼쪽부터 김세연(스포츠지도학 2022), 김동현(스포츠지도학 2024), 염혜정(스포츠지도학 2023)선수. (사진=도은오 기자)

2025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전입신청 안내

1. 기간 : 2025. 07. 15(화) ~ 2025. 07. 24(목)

대학기본훈련 일정 : 11.17(월)~11.25(화) 총7일(부대 여건상 기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대상 : 학사, 석사, 석·박사 통합, 박사과정의 신·편입, 복학생, 이전 학기 신청 누락자

3. 신청방법

가. PC화면 : 대학생활 - 온라인 신청/연구 - 예비군전입신청

나. 모바일 화면 : 경희대학교통합앱(신규) : Service - 예비군전입신청

※ 예비군 전입 신청(저장) 후 이어서 복학 신청 진행

4.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훈련 면제 대상자는 방문 서류 작성 바랍니다.

나. 개강일 이후 전역자는 전공학과 행정실에 복학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다. **민방위대원, 복무완료자**는 전입신청이 불필요하므로 예비군연대로 문의 바랍니다.

라. **수업연한 초과자, 수료자, 유급자, 석사과정 이상 논문과정 등록자, 직장예비군에 소속된 자**는 전입이 불가합니다.

마. 학생예비군 신청 시 연1회 기본훈련 8시간 부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1) 학생예비군 : 【1~6년차】기본훈련 8시간(연1회)

2) 일반예비군 : 【1~4년차】동원훈련 I 형(舊 동원훈련) 28시간 또는 동원훈련 II 형(舊 동미참훈련) 32시간 【5~6년차】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전·후반기 각 6시간)

바. **병무청으로부터 "동원훈련 I 형(舊 동원훈련) 부과받은 학생"**들은 예비군연대로 문의 바랍니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첨부파일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예비군 홈페이지 이용 안내

QR을 접속 후 훈련일정 자율선택, 훈련연기, 전국단위/휴일예비군훈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찾아오시는 곳 : 네오르네상스관 1층(115호) ☎ 02-961-0148~9

(서울)경희대학교예비군연대



IR&A센터, 개방성으로 혁신 이어가길

기획조정처 산하에 IR&A센터가 신설됐다. IR&A센터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성과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다. 즉, 우리학교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IR&A센터는 대학 내외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성과 중심 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각종 대학평가 지표 또한 정성적 설명보다는 정량적 수치 중심의 자료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직관이나 경험을 참고하는 결정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학 운영에서도 정보 수집과 분

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타 대학 사례를 봐도 그렇다.

한양대는 개방형 IR 생태계를 통해 타 대학과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숙명여대는 교육 관련 데이터를 실질적인 교수-학습 혁신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특정 부서의 의사결정 보조 도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교수, 학생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행정이 단순한 수치 나열에 그친다면 이는 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나 혁신을 이끌기 어렵다. 수집한 데이터가 일부 행정조직이나 소수의 보직자만을 위한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면, IR&A센터는 그저 또 하나의 폐쇄적 기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학문 발전은

물론, 교육 개선과 학생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해당 데이터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경북대 IR센터는 홈페이지에 교육과 관련해 수집한 데이터 보고서를 업로드해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데이터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데이터 공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학내 구성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학교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인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내부 시스템 점검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IR&A센터 출범은 데이터 기반 대학 운영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그 변화가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수치가 아닌 전략, 형식이 아닌 실질로 이어지는 데이터 행정의 정착이야말로 우리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IR&A센터가 단지 일부 행정 처리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공동의 자산으로 가능하길 바란다.

러브버그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며칠 전 인터넷에 올라온 인천 계양산 사진은 공포 그 자체였다. 산을 뒤덮어 까맣게 물결치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때문이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은 러브버그로 난리였다. 사람을 물지도 않고 병을 옮기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둘씩 짝지어 비행하는 꼴을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만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약 9천 건이었다.

러브버그는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좋아한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러브버그는 대벌레, 갈파구에 이어 곤충 대발생의 주인공이 됐다.

학자들은 원인이 생태계 변화와 기온 상승이라고 설명한다. 인공 숲을 조성하고, 도시 열섬 현상으로 출현한 특정 종이 천적 없이 과번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러브버그는 기후 위기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할 문제다.

그런데 러브버그가 한창이라는 소식에 한 기초단체장은 시민에게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련히 참고 살아온 시민 입장에서선 공직자들의 책임 회피 발언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 불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공직자였다면, 이 현상은 기후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테다. 따라서 ‘참는다’는 회피보다 정책적 대응 방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

러브버그는 참아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거대한 위기의 작은 신호다. 작은 곤충의 일탈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단순 방제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러브버그도 생태 환경이 변했기에 서식지를 옮긴 것뿐이다. 참새가 러브버그를 먹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문제 해결을 자연에게 온전히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과제를 풀어낼 꾸준한 연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결혼비행을 마친 러브버그는 곧 자취를 감추겠지만, 앞으로 더 낮설고 거대한 불청객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때도 좀 참고 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러브버그가 지구를 대신해 우리에게 묻고 있다. 기후 위기 신호를 못 본 체 넘기고 방역에만 급급할 건지, 아니면 현상의 본질을 짚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을 것인지. 미래세대와 지구를 ‘사랑’하는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회관 식당을 바라보는 시선

지적보단 지원을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생협이 국제캠에 들어선 지 한 학기가 흘렀다. 국제캠 학식이 정상화됐다는 데엔 구성원 이견이 없을 듯하다. 매출 상승에 운영이 확장된다고 한다. 정문 건너 식당에선 “생협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한탄도 들려온다. 학생에게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밥이 맛있어졌다’고 의미를 두면 곤란하다. 생협의 효용성을 학식에 서만 찾게 된 국제캠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학기 학관 식당을 바라보는 구성원의 시선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식당 운영 주체,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학식 운영위원회(운영위) 회의는 여전히 식당 운영 지적과 감시에 초점을 맞췄다. 운영위는 작년 위생 문제가 심각했던 학식 업체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한데, 같은 방식을 생협에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식중독 의심 사례에선 조사 결과 발표도 전에 소송을 주장한 학생도 있었다. 일부 학생은 생협을 단지 ‘업체’로 인식하는 실정이다.

학관 식당을 대하는 인식이 ‘업체 대 소비자’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곤란하다. 생협은 구성원 복지를 위해 학생·교수·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학식 운영은 복지를 실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다. 수익만이 목적인 업체와는 다르므로, 생협의 식당 운영을 무작정 지적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다.

사실 학식은 운영이 잘 돼도 걱정이다. 생협은 양질의 식사를 위해 학식 가격의 50%를 식자재비로 사용한다. 여기에 소모품비, 인건비 등을 더하면 적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서울캠에선 식당뿐 아니라 서점·편의점도 운영하는 이유다. 국제캠에선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물론 식당 운영에 적절한 지적은 필요하다. 하지만 생협의 설립 취지를 따져본다면, 지원과 협력이 먼저이지 않을까.



만평 양 캠퍼스 복지 챙기는 생협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

8 사람

‘빅문의 아버지’ 정용석, 정년 앞두고 교양의 미래를 묻다

과학 · 인문 잇는 수업 성과와 AI 시대 확장 제언

최단 기자 dan2530@khu.ac.kr

후마 대표 교양 강의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학생에게 우주와 문명, 존재를 아울러주며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0년간 ‘빅문’의 뿌리를 다져온 정용석(미생물학) 교수가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다. 30여 년간 우리학교에 몸담아 온 ‘빅문의 아버지’ 정 교수에게, ‘빅문’의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후마가 지난 2010년, 새롭게 출범하면서 정 교수는 교양학부 총괄 PD를 맡게 됐다. 그 과정에서 초대 학장의 말이 빅문의 시작점이 됐다. “정말로 학생에게 교양이라는 걸 가르치려면, 과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 교수는 그 말에 동의했다. 정 교수는 빅문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자리 잡은 수업은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과학으로 교양을 가르치는 기초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죠.”

빅문, 교양 교육의 전환점을 열다

당시 정 교수가 제안한 ‘전임 교수 중심 수업’은 꽤나 낯설고도 파격적이었다. 당시 많은 교양 강의를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과학은 각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학생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며 강의진 전원을 전임 교수로 구성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 기준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 교수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 각 분야 전공 교수를 한 명 한 명씩 직접 찾아가 설득했다. 단편적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과 문명을 과학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짜기 위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역시 좋은 수업을 위한 노력은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다. 내부에서도 ‘교양 교육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던 시기였다. 정 교수는 “과학으로 교양을 가르치는 기초조차 없던 시절”이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럼에도 정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교양의 틀을 만들어가기



정 교수는 교양이란 ‘무엇이 옳은가’를 스스로 묻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틀이라 설명했다.

(사진=최단 기자)

위한 공동 기획을 이어갔다. 그렇게 빅문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12.6점, 13.1점이었어요.” 정 교수는 초창기 강의평가 점수를 떠올리며 답답히 말했다. 좋은 수업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고, 시간이 흐르며 교수진은 점차 자리를 잡았다. 수업 내용도 해마다 발전했다. 그 결과, 지금은 학생의 높은 호응을 얻는 대표 교양 수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강의평가 점수가 90점을 넘을 만큼, 안정된 운영과 깊이 있는 강의 내용이 함께 축적되고 있다.

기술 문명 속 교양의 새로운 과제

정 교수는 빅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조언을 던졌다. 향후 구성에서 기술 문명의 흐름, 특히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강의에는 AI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정 교수

는 “AI는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2000년 전에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인간을 설명하는 데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로봇, 암호화폐 등 이들의 방향이 인간의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재와 역할이 기술



빅문 편찬 과정은 인간과 문명을 과학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짜기 위한 여정이었다. (사진=최단 기자)

발전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시대에, ‘빅문’ 역시 이러한 흐름을 포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빅문’이 과거의 우주와 문명, 철학을 조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핵심 쟁점들까지 교양의 언어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 누구인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빅문’은 과학과 인문을 넘나들며, 기술 문명의 흐름 위에서 인간과 사회, 윤리의 문제까지 함께 성찰하는 교양의 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구상이다. 이는 ‘빅문’이 단지 과거를 통찰하는 교과를 넘어, 미래를 묻는 교양의 실험실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눈 교양에서 시작된다

“교양의 목적은 교양이 아니다.”

정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교양을 단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으로 여기는 인식에 선을 그었다.

예술, 기술, 정치, 경제 등 학생이 사회인이 돼 마주할 변화 앞에서 결국 필요한 것은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교양이란 ‘무엇이 옳은가’를 스스로 묻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틀이라 설명했다. 삶을 판단하는 도구, 그것이야말로 교양의 본질이라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정 교수는 자기 삶의 품질을 타인의 시선으로만 재단하는 현실에 회의적이었다. “우리는 평생, 자기 평가를 타인에게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성찰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정 교수는 ‘교양’이라고 믿는다. “학생이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빅문은 그 기준을 함께 묻고, 길을 찾아가는 교양이다.